

새로운 책

“불교예절-상식 동화로 배워요”

김영만씨 ‘스님은 황금을 메고...’

재미있게 읽다보면 ‘불교가 보여요’

‘간추린 불교예절 50문50답’ 도 정리

“절에서는 왜 늘 향을 피우는지요.” “절에 왜 도깨비집(천왕문)이 있나요.”

절을 찾는 어린이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이다. 이같은 의문들을 비롯 불자예절,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술술 읽어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불교 안내서가 동화로 나왔다.

불교아동문학 신인 작가상을 수상한 동화작자 김영만(사진)씨가 펴낸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가 바로 그것. ‘동화로 배우는 불교예절 상식’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여덟방향이 끝난 개학식 날부터 우란분절인 그 이튿날까지 주인공인 세모와 친구들, 짝꿍인 한나라네 가족, 같은반 친구이며 소년가장인 석기형제가 백운사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이다. 특히 황금덩어리를 메고 산을 내려오는 해덕스님의 행방은 글을 읽는 내내 궁금증을 주어 재미를 더하고 깨달음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발단은 백운사에 있는 마애불이 소원을 잘 들어 준다는 소문에서 비롯된다. 공부 잘 해 짝꿍 나라에게 잘 보이고 싶은 세모, 슈퍼모델이 되고 싶은 소라,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길이가, 가수가 되고 싶은 방울이,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장훈이, 이들은 마애불에 소원을 빌러 가기로 백운사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릇된 동기에서 백운사에 가게 되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독실한 불교신자인 나라 부모님과 스님을 만



나면서 차츰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이야기속에는 불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등등의 기초적인 상식과 불자에게 필요한 예절이 재미있는 사건과 함께 담겨 있다. 또 이 책은 <365일 동화> <시상나들이>등의 동화책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최민주씨의 그림이 눈을 즐겁게 해 더욱 재미있게 읽는 요소가 된다.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불교의 참뜻이 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쉽게 이해된다”며 “읽고 나면 주인공들이 보여 주던 불자예절과 수행방법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 금방 익히 실천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스님은 황금을 메고...> 끝에는 ‘간추린 불교예절상식 50문50답’을 실어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예절과 상식을 문답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다. 동화를 먼저 읽은 다음에 다시 읽는 ‘간추린 불교예절 상식 50문 50답’은 머리속에 더욱 속속 들어온다.

저자는 “어린이들 어머니 따라 절에 갔을때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러동질했던 경험이 출간의 동기가 됐다”며 “어릴적 불교예절에 대한 혼란은 불교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올바른 불자가 되는 단초가 된다”고 강조했다.(더림 펴, 6천원)

김종근 기자 (garnja@buddhania.com)

한국불교 선지식 열분 전문답 통해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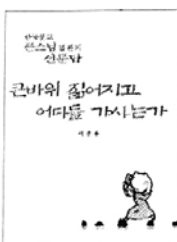
이은운씨 ‘큰바위 짙어지고 어디를 가는가’

선어록 관련 서적은 중국 선종사와 중국 선사들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이들 서적은 조사선의 극치를 보여 주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한국 선불교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불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이은운씨가 선지식 열 분의 전문답을 쓴 <큰바위 짙어지고 어디를 가는가>는 중국에서 사라진 조사선의 맥이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수행처를 찾아 나눈 전문답을 통해 우리나라 선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서술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조계종단의 종권 다툼에 대한 질문에 “(세상의 모든 감투는) 눈 위를 밟고 간 기러기 발자국(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 버리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답하는 서용승님(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을 비롯, 해암, 서암, 석주, 원담 스님 등은 현대 한국불교의 얼굴이자 우리나라 현대 불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인 이은운씨가 31년 동안의 취재 경험에서 겪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실상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신도들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속살까지 풀어내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중앙 M&B 펴,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 끝없는 행원= 어둠 속의 보배라 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려 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교육 포교 사회복지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천은스님의 작은 실천. 보현행원의 수행을 한다면 성불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것을 강조(향림 펴, 값 4천6백원)

▲ 선심 초심= 선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기가 어려워 깨끗한 수행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이 책은 어렵고 난해한 선서가 아니다. 우리의 수행이 깨끗함을 잃어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불일소책 시리즈 여섯 번째인 <선(禪)>의 개정판. 강연실 옮김. <불일출판사 값 6천원>

▲ 타래= 속명 이경미 법명 보현스님. 80년대 초 CF모델, MC, 가수 등 연예계를 주름잡던 그녀 어느날 갑자기 출가했다. 그리고 13년만에 자선소설을 썼다. 번뇌를 안고 수행할 수 없다는 산문의 진리를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스님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실타래처럼 얽힌 속세의 이야기들이 한줄 한줄 풀어 해쳐진다. <찬성 펴, 값 7천원>

▲ 붓선 세 상속으로 행복 한 여행 떠나기= 여행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한다. 이상적인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참맛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책. 2박3일, 3박4일의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초보 여행자들을 위하여 코스 등 상세한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변산 개암사, 미륵신앙의 진원지 금산사 등 8도의 사찰과 불상 그리고 가볼만한 여행지들이 수록됐다. 김산환 지음 <성하 펴, 값 1만 원>

시어로 녹인 불교우주관

정관스님 첫 시집 ‘선우’ 펴내

산과 들 공아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실체없는 뜬 구름이/ 인연따라 흘러 지는 이 도리/ 부처님의 진면목이 면/ 부처님 참 모습에는/ 오고 가는 거래의 흔적이 없으니/ 흔적없는 이 도리가/ 이윽고 최상승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오신날> 중에서

구도자로서의 번뇌, 깨달음, 그리고 우주관이 간략한 시어로 녹아 있는 이 시집에서는 수행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시상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시집은 영문 번역시도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 불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자들까지도 우리나라 불교의 속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스님의 열의와 노력은 강한 포교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집에는 ‘법어사 소적새의 밤’ ‘산불가(信佛歌)’ 등 16편의 시가 실려 있다. 값 6천5백원. 김종근 기자



‘붓다’ 36년만에 재출간

박경훈씨, 한글가로쓰기 수정보완

불자들에게 애독됐던 현암신서 시리즈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 36년만에 읽기 쉽게 <붓다>로 재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이 재출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청소년들은 물론 현대인들의 독서성향에 맞게 넓어 읽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존판형을 새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꿨다. 물론 내용도 수정보완해 시중에 내놓았다.

박경훈씨(前 법보신문 주필)가 번역한 <붓다>는 가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을 생생하게 되살

려 기록한 전기. 이 책은 붓다가 출가하기까지 겪은 마음의 갈등, 고행, 해탈, 열반과정 이 자세히 실려 있어 누구나 붓다를 친근하게 느끼며 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아집과 욕심, 이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한없이 넓고 깊은 자비와 예지의 빛을 던져주는 책이다. 무사고지 사내아츠지음. <현암사 펴, 값 9천8백원>

김종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지	시공사
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나	한 형 조	여시문
4	선문학요	이 철 교	민족사
5	허공의 몸을 찾아서	지 명	불교사설
6	가슴을 적시는...	보현님	한샘
7	유식학개론	이 만	민족사
8	인연이끼기	삼 중	문화수첩
9	선명보전	원 철	장경각
10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연	민족사

구입문의: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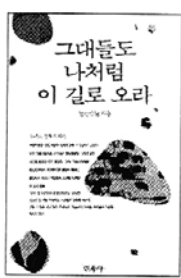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법산스님 지음

중도행법 가르침 이해 쉽게 설명

“수행자들은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중도행법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며칠이라도 전심전력하여 정진한다면 끝없이 해미던 불안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는 대구 여래선원 법산스님이 10여년동안 인도 스톤리 탕가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구도행과 <대념처경>은 근간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담은 책. 바른마음챙기기, 중도행법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해탈에 이르는 16관문을 소개한 수행 지침서다. <민족사 펴, 7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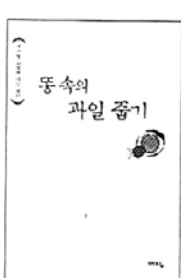
동속의 과일줍기

지명스님 지음

공해도시 극락으로 바꾸는 지혜

화제의 책

무(無)사상과 생활철학을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쉬운 말로 풀어 써온 지명스님의 글이 <동속의 과일줍기>로 묶여 나왔다. 이 책은 95년부터 불교계 신문및 일간지, 잡지 등에 실어온 칼럼과 수필을 모은 것. ‘동속의 과일줍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젊은이가 갈나무 밑에서 대변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 홍시가 떨어져 감을 주워들었다. 어른들은 어찌 동속의 과일을 주워 먹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먹으려고 집은 것이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공해 덩어리 도시를 극락으로 바꾸는 지혜를 잔잔히 들려준다. <예담 펴, 값 7천5백원>



화제의 책

다시보는 팔만대장경 이야기

박성진 지음

대장경 새긴 고려인의 열 재조명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다. 불력에 의해 불교의 침략을 물리쳐 보고자 조성했던 고려인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경북대 박성진교수가 지은 <다시보는 팔만대장경 이야기>는 팔만대장경판의 참다운 이해를 위한 해설서이다. 이 책은 대장경판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새겨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무의 종류, 경판을 새기는 과정의 재현, 대장경판에 얽힌 설화 등에 대해 다. <운송신문사 펴, 값 7천5백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
· 49째 안내 ·

태고사에서 승정원장으로 봉행된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이 지면을 빌어 가슴깊이 감사의 드리오며 운제당 이영무스님의 49제가 다음과 같이 봉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무루 참석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 49째

· 일 시 : 6월 3일(음력 4월 20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 소 : 법륜사(서울시 중로구 사간동 112)
· 연락처 : (02)732-2710

실기 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성격, 가치관의 체계화
- 자료의 재구성 능력 확보
-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 등

■ 연수안내 ■

- ▶ 기간 : 2개월 과정
- ▶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 사후관리 :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 ▶ 장소 : 본연수원 강의실
- ▶ 지도교수 : 김 환 술 박사

● 문의 및 신청 ●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即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능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금가피”)에 따르면 이종형 선동렬 이종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8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도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갖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모옥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baegh/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佛宇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지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龍) 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전●
전수주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인공불교 신도기립의 조대 작기로 추진함.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宇, 龍宇 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제, 가정문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